

제52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대상,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 자료 제공 :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가 매년 방송의 날을 기념해 지상파방송의 가치를 드높인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한국방송대상이 올해로 52회를 맞으며, 방송의 날인 지난 9월 3일 오후 3시 SBS 프리즘타워에서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년간 시청취자들에게 사랑받은 방송된 프로그램 244편, 방송인 5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작품상 24개 부문 29편, 개인상 20개 부문 18명을 올해의 수상작/자로 선정했고, 시상식에서 발표된 영예의 대상에는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선정되었다. 대상을 받은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인정받는 프로파일러가 살인 사건에 얹힌 딸의 비밀을 마주하고 진실을 쫓는 스릴러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치밀한 복선, 독창적인 연출, 완성도 높은 서사를 통해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끌어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방송의 날'은 우리나라가 1947년 9월 3일 ITU(국제전기통신연합)로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호출부호인 'HL'를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방송에 관한 독립적인 주권을 갖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 제62회를 맞았으며, 한국방송대상은 1973년 지상파방송의 공적 가치를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인을 통해 재확인하고 되새기기 위해 제정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은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의 개회사에서 “대장금, 모래시계, 태양의 후예 등 전설처럼 남아있는 수많은 콘텐츠들은 모두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으로, 이러한 역사와 경험이 쌓여 K콘텐츠를 글로벌 문화 시장의 중심에 서게 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상파방송과 협회는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 도전과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회사 중인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



대상을 받은 소감을 말하는 남궁성우 EP(중앙)와 프로듀서상의 송연화 MBC PD(우측 두 번째)



방문신 회장에게 대상을 받는 장면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대상과 함께 프로듀서상도 받는 2관왕으로 화제가 되었다. 연출을 맡은 송연화 MBC PD는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친자’를 만들기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한 한아영 작가님과 스태프, 배우들 덕분에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을 수 있었다. 감사함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 더 좋은 드라마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고, 드라마를 기획한 남궁성우 EP는 “‘이친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3년 전, 한아영 작가님의 대본을 보고 이 드라마의 가능성을 믿었고, 송연화 감독을 믿었다.”라며, “한석규 선배님께서 이 대본을 읽고 저희를 믿어주셔서 기뻐이고 영광이었다. 30년 만에 친정 같은 MBC에 돌아와주신 기념비적인 일이기도 했다.”라며 소감을 밝혔고 마지막으로 채원빈 배우를 비롯한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공을 돌렸다.

시상된 올해 한국방송대상의 작품상은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전문을 입수·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MBC ‘노상원 수첩 전문’ 최초 연속보도(뉴스보도) △ 제주항공 2216편 참사시 블랙박스가 놓친 4분 7초의 기록을 추적한 KBS <시사기획 창> ‘2216편 추적 보고서’(시사보도TV) △ 폐업 위기에 처한 지역 상권과 장소를 찾아 솔루션을 제시하는 SBS <손대면 핫플! 동네 맛집> 시즌2(연예오락TV) △ ‘온 국민이 과학을 취미로 삼는 그 날까지’를 모토로 한 과학 토크쇼 EBS <취미는 과학> (생활정보TV) △ 25명의 시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람을 담아낸 CBS <김현정의 뉴스쇼> ‘21대 대선기획, 국민의 바람이 분다’(시사보도R) △ 인류 문명사에 의미있는 전세기 ‘벽’을 통해 경계의 철학을 다룬 G1 <경계탐구 파노라마 세계의 벽> (지역다큐TV) 등 29편이 수상했다.



시사보도 부문 작품상 수상자들



다큐멘터리 부문 작품상 수상자들



어린이·뉴미디어·사회 공익 부문 작품상 수상자들



생활 정보·문화예술 교양·지역 교양 부문 작품상 수상자들

또한, 개인상은 △ 공로상 EBS 서준 △ 프로듀서상 MBC 송연화 △ 진행자상 최불암 △ 내레이션상 양희은 △ 영상촬영상 EBS 김태봉 △ 미술상 EBS 안현정 △ 영상그래픽상 SBS A&T 권순민 △ 음악상 MBC 박교연 △ 조명상 KBS 염지웅 △ 아나운서상 SBS 주시은 △ 작가상 EBS 임정화 △ 방송기술상 KBS 최성우 △ 방송경영상 MBC 윤보라 △ 최우수연기자상 이준혁 △ 최우수예능인상 박보검 등 18명이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한편, 올해 최우수 연기자·예능인·가수상은 심사위원 평가 외에 시청자 투표를 30% 반영함으로써 대중성이 강화되었다고 한국방송협회는 보도했다.



스포츠제작보도 부문
개인상 KBS 정재윤 PD



지역방송진흥 부문
개인상 UBC 정윤지



공로 부문
개인상 EBS 서준 PD



진행자 부문 개인상 배우 최불암



최우수예능인상 부문 개인상 배우 박보검

제52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자작 리스트

대상

수상사	작품명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품상

부문		출품사	작품명
	뉴스보도	MBC	'노상원 수첩 전문' 최초 연속 보도
	지역뉴스보도	TBC	'혈세 쏜 DTL, 알고 보니 의원님 왕국' 연속 보도
	시사보도TV	KBS	<시사기획 창> '2216편 추적보고서' 2부작
	시사보도R	CBS	<김현정의 뉴스쇼> '21대 대선 기획, 국민의 바람이 분다'
	지역시사보도	TBC	<무너진 고향! 경북산불 149시간 보고서>
	문화예술교양	MBC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다큐멘터리 <한강이 온다>
	어린이	KBS	<다큐 인사이트> '파이팅은 지지 않아'
	생활정보TV	EBS	<취미는 과학>
	생활정보R	SBS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생활경제 코너 '월간 슈카'
지역교양TV		MBC충북·대전MBC 공동제작	<인생내컷>
		KNN	<사라진미>
	지역교양R	tbn경인교통방송	<권계현의 달리는 라디오> '인천야곡'
	다큐멘터리TV	MBC경남	<엄마의 말뚝>
	다큐멘터리R	tbn충북교통방송	오송 지하차도 참사 트라우마 보고서 <안고산다>
지역다큐멘터리TV		울산MBC	<바실라> 3부작
		G1방송	4K 다큐멘터리 <경계탐구 파노라마 세계의 벽> 7부작
	지역다큐멘터리R	JTV	<슈퍼노바 김명곤> '사운드 혁명' 4부작
드라마TV		SBS	<보물섬>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연예오락TV		SBS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 시즌2
		KBS	<박명수의 라디오쇼>
	지역오락TV	TBC	<학교가(歌)>
	지역오락R	안동MBC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릿발 칼날 진 광야에서>
	음악구성R	EBS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사회공익TV		EBS	<다큐멘터리K>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6부작
		tbn대전교통방송	<출발 대전대행진>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
		제주·강원영동·충북·대전·광주·목포 지역MBC 공동제작	<지역생존프로젝트 -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뉴미디어	예능	SBS-STUDIO161	<문명특급> '위대한 재쓰비'
	시사교양	전북CBS	<문혔던 채상병들>

개인상

부문	추천사	수상자	작품명
공로	EBS	서준	<하나뿐인 지구>, <다큐프라임> 등 30년 간 EBS의 대표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
지역방송진흥	ubc	정윤지	<행복한 네시> 진행
프로듀서	MBC	송연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스포츠제작보도	KBS	정재윤	<백스테이지>, <플러티어>
영상촬영	EBS	김태봉	<취미는 과학>, <멋진 신세계, AI>
미술	EBS	안현정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봉>
영상그래픽	SBS A&T	권순민	<과몰입 인생사 시즌 2>
음악	MBC	박교연	<나 혼자 산다>, <놀면 뭐하니?>
조명	KBS	염지웅	주말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아나운서	SBS	주시은	<접속 무비월드>, <SBS 메가 콘서트>
작가	EBS	임정화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진행자	KBS	최불암	<한국인의 밥상>
내레이션	SBS	양희은	<생활의 달인>
방송기술	KBS	최성우	AI 직캠 제작 소프트웨어 VVERTIGO(버티고) 개발 외
방송경영	MBC	윤보라	MBC 데이터 플랫폼(DIVE) 구축 외
최우수연기자	SBS	이준혁	<나의 완벽한 비서>
최우수예능인	KBS	박보검	<더 시즌즈 - 박보검의 칸타빌레>
최우수가수	MBC	제이홉	<나 혼자 산다>, <친한친구, 이현입니다>